

人口增加와 社會問題

朴 興 壽

〈延世大學校 教授〉

1. 人口增加의 深刻性

「人口暴發」의 問題는 어제, 오늘에 비롯된 것이 아니다. 食糧問題, 「에너지」問題, 環境汚染問題, 教育問題, 人力需給問題, 國土空間利用問題, 社會病理現象, 이 모두가 直接 혹은 間接으로 人口의 增加와 관련되어 우리의 日常生活을 壓迫하고 있는 것이다.

糧穀全體의 自給率이 1980年 현재 55.6%이던 것이 2000년에 가서는 43% 내지 52%로 떨어질 것으로 推計되고 있다. 「에너지」輸入依存度도 1979年度에 72.6%로 記錄되었고 2001년에 가서는 91.3%로 增加할 것으로 展望하고 있다.

大氣汚染도 예외는 아니어서 1980年 現在 大氣環境基準 亞黃酸가스濃度가 0.05PPM을 超過하는 날이 서울의 경우 年間 72.1%, 釜山の 경우 41.5%로 集計되고 있다. 教育機關別 學生數도 계속 增加推勢를 보이고 있다. 1945年 당시 國民學校 學生은 137萬名이던 것이 1980년에는 566萬名으로 4배 이상으로 增加했다. 같은 기간중에 中·高等學校 學生의 수는 8萬에서 417萬名으로 50배나 增加하였고 大學生의 경우 84名에서 57萬名으로 늘어나

增加率이 70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教育과 直結되어 있는 人力需給의 問題도 人口增加의 波及效果로 나타나는 것이다. 1980年度의 失業率은 經濟活動 參加人口의 5.2%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1980~1981年 사이에 15歲 이상의 勞動可能人口은 매년 2.5%씩 增加할 것으로 豫想되어 이 만큼 雇傭創出의 壓力은 增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人口의 急激한 增加는 國土空間 利用에 있어서도 심각한 問題를 惹起시키고 있다. 9萬 8千여 km²의 狹小한 空間에 무려 3千 9百萬名이 살고 있고 2千年에 가서는 5千 2百萬 정도가 삶을 營爲해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산과 하천을 제외하게 되면 3萬餘km²라는 좁은 空間속에서 우리 後世들은 살아야만 될 運命에 있는 것이다.

人間은 태어나서 여러 곳으로 移動을 하면서 살게 된다. 그들의 移動은 주로 農村에서 都市로 향하는 것이 世界的인 推勢이다. 1980年 현재 우리나라의 都市 人口가 57.3%로 나타났고 2000년에 가서는 전체 人口의 77.2%가 都市生活을 할 것으로 推計되고 있는 것이다. 즉 현재 우리나라 人口 3千 8百여 萬名이 고스란히 都市에서 살게 된다는 것을 뜻한다. 人口의 增加와 都市密集現象은 住宅

의 不足現象을 부채질하게 될 것이다. 1981~1986年 사이에 예상되는 住宅 不足率은 21.4%로 보고 있고 1987~2000年 사이에는 이 比率이 26.3%로 늘어 날 것으로 豫想된다.

都市로의 人口密集은 既存하는 傳統, 價值, 規範, 行爲樣式을 파괴하는 힘을 갖고 있다. 都市에 살므로해서 人間은 核化되어 버리고 共同體 意識은 상대적으로 退化되어 가게 된다. 都市生活은 血緣이나 地緣을 기초로 한 有機的인 連帶意識을 形成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人間 사이의 相互關聯性이 결여된 疎外 狀態에서 유발되어 遵律的이기 보다는 背律的인 行動과 無責任한 行動을 하고도 별로 罪意識을 느끼지 않는 소위 「아노미」(無規範) 상태로 人間을 몰아 넣게 된다. 이러한 環境이 바로 社會逸脫行動의 元凶인 것이다. 犯罪, 少年非行, 離婚問題 등이 모두 社會의 「아노미」(Anomie) 현상과 직접 혹은 간접으로 연 관되어 있는 것이다.

檢察統計에 따른 총 犯罪件數는 1969年 당시 10萬名당 1,145名이던 것이 10年 후인 1979年에는 1,498名으로 늘어났다. 少年의 非行도 1970年度를 基準年度로 하여 100(38,896名)으로 잡았을 때 1979年度에는 154.2%(59,975名)로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한편 총 婚姻數에 대한 離婚率도 1956年度에 3.5%이던 것이 1966年度에는 5.8%로 늘어 났고 현재는 이 比率보다 더 높은 것으로 推定된다.

2. 人口增加의 巨視的인 含蓄性

단약 人口가 매년 1%씩 增加하면 약 70年 이면 2배가 된다. 年平均 人口增加率이 2%이면 약 35年 후에는 基準年度 人口의 2배가 된

다. 우리나라의 年平均 人口增加率을 1.5%로 잡았을 때 약 47年만에 人口가 倍로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속도로 增加하는 人口가 超來할 問題는 대략 두가지 次元으로 分類하여 解釋할 수 있다.

① 人口의 暴發은 食糧, 空間利用, 天然資源, 教育, 雇傭, 公害 등에 否定的인 壓迫을 가하여 國民의 經濟的 苦難, 營養失調, 또 그로 인한 健康問題를 유발하게 되는 構造的 側面이다.

② 開發途上國들의 發展을 향한 努力은 資源의 枯渴現象에 부딪쳐 挫折될 것이라는 소위 南北問題로 分類하여 說明하는 次元이다. 先進國에 비해 상대적으로 人口의 增加率이 높은 開發途上國은 天然資源供給에 어려움 뿐만 아니라, 開發에 필요한 資本과 技術을 모두 先進國에 依存하지 않으면 안되는 2重苦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또 일단 技術, 資本, 資源을 導入하여 生産한 商品도 國內需要의 저조로 이들 商品을 先進國으로 輸出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3. 人口暴發의 社會的 衝擊

出生, 死亡, 移動으로 규정되는 人口過程이 불러 일으키는 社會的 衝擊은 人間이 수행해야 할 社會的 役割, 社會解體, 制度의 再編成 그리고 文化의 斷絶과 劃一化를 낳게 된다.

① 人口의 급격한 增加는 社會構造의 基本單位를 이루고 있는 役割構造를 바꾸어 놓게 된다. 즉 階層別, 地域別 差別出產은 각각 個人이 맡아야 할 社會的 役割의 分布를 變質케 한다. 예를 들면 高所得層에 속하는 사람들은

低所得層에 속하는 사람들 보다 出産力이 비교적 낮아서 일반적으로 적은 數의 子女를 갖게 된다. 社會化 機關으로서의 家庭은 2世들을 약간씩 다르게 길을 들이고 教育을 시켜서 相異한 役割期待를 갖게 만드는 것이다.

특히 階層別 教育機會의 差異는 이들이 갖게 될 職業의 構造를 바꾸어 놓는다. 또한 職業構造의 變動은 職業의 生産性을 바꾸어 놓아 社會變動을 促進하게 될 수도 있다. 役割分布가 달라지면 자연히 社會構造의 變動을 招來하기 때문에 社會變動이 시작되는 것이다. 급격한 社會變動의 渦中에서는 불가피하게 階層間, 地域間 혹은 年齡間의 葛藤과 摩擦을 빚게 될 우려가 있다.

② 人口의 급격한 增加現象은 社會解體(social disorganization)를 促進하게 된다. 社會解體란 社會의 원활한 機能이 沮害된다는 뜻으로 定義된다. 즉 社會가 一切感을 잃는다는가 國民 各者間의 協力이 결여된다는가 혹은 葛藤의 渦中에 휘말리므로 말미암아 그 社會가 追究하는 목적을 達成하지 못하는 데서 社會解體는 시작되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 보기로 한다. 家庭은 하나의 社會體系로 파악할 수 있다. 만약 唯一한 收入源이 되는 그 家庭의 家長이 失業者가 되어 家族成員의 安寧과 福祉를 保障할 수 없게 된다면 그 家庭은 解體될 운명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즉 集團이나 制度 혹은 社會全體에 포용되는 人口의 數가 늘면 그들의 存續을 위해 필요한 機能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없게 되어 解體現象이 일어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의 大學教育制度도 급격한 學生數의 增加로 解體現象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의 教育目的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教授要員의 不足, 施設의 不足, 심지어는 食堂과 화장실의 不足現象은 教育의 質의 低下를 불러 이르기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비교적 적은 數의 學生들만을 다스리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規範인 學則은 增加된 學生들을 다스리는 데에는 效率的일 수 없는 것이다. 이들의 行動을 統制하기 위하여는 불가피하게 더 많은 學則規定을 增設해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過多한 行爲規制에 대한 學生들의 不滿을 사게 될 위험성도 있게 된다.

이러한 社會解體現象이 불가피한 현상은 물론 아니다. 人口增加가 별로 없고 地域間의 人口移動이 미미한 상태이고 教育機會가 안정되어 있고 職業構造가 變動하지 않는 社會에서는 社會解體現象에 직면할 위험성은 상대적으로 減少되게 마련이다.

③ 人口의 增加는 기존하는 制度의 再編成을 불가피하게 한다. 制度의 再編成 과정은 都市와 農村間에 존재하는 社會經濟的인 相互關係에서 엿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60年代 말까지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人口가 農村에서 살고 있었다. 都市人口는 불과 30%정도 밖에 되지를 않았다. 그래서 都市人口는 農村에 사는 多數人口의 便益을 위하여 봉사하는 방향으로 制度가 編成되었으나 70年代로 접어들면서 逆으로 都市人口가 農村人口를 上廻하여 이제는 都市民이 多數人口를 占하게 되는 逆流現象이 일어났다.

그 결과 農村人口가 都市人口의 生活必需品를 供給하는 奉仕者의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經濟的으로도 都市人이 農村人口보다 비교적 優位에 서게 되어 이들간의 人間關係가 再編成되지 않을 수 없는 運命에 처하게 된 것이

다. 人口增加로 비롯되는 再編成 過程에서 많은 施行錯誤와 그로 인한 社會的 葛藤을 겪게 되는 것이다. 制度內에 포용되는 人口의 數가 크면 늘수록 制度의 再編成 過程은 複雜多端하게 다양한 樣相을 띄우게 된다.

Mott에 의하면 人口增加로 인한 制度의 再編成은 12가지의 附隨現象을 수반하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① 成員間的 分業과 專門化 현상이 增加한다는 것이다. 分業과 專門化는 다시 相互依存성을 높여 制度의 一部機能이 마비되면 그 效果가 全體에 파급되는 약점을 내포하게 된다.

② 특정한 組織속에서 生活을 하는 사람 數의 增加는 그들이 수행해야 할 役割을 形式化하게 된다. 즉 다정한 人間關係에 기초한 役割의 기대는 사라지고 人間味가 결여된 疎外感을 불러 일으키는 機械의 作動과 같은 規則的 役割을 맡게 된다는 것이다.

③ 한 組織 혹은 國家의 成員이 늘면 불가피하게 동일한 행위에 대한 規制規範이 多樣化하게 된다. 동일한 行위를 다스리는 基準이 서로 틀릴 때 葛藤이 생기고 社會正義의 問題가 유발되는 것이다.

④ 人口의 增加는 組織이나 國家 전체 속에서 발생하는 規範違反行爲(逸脫行動)의 增加를 수반하게 된다.

⑤ 人口의 增加는 組織, 制度, 크기는 國家 統合 혹은 國民的 總和達成을 어렵게 만든다. 동일한 事物이나 行위에 대한 評價基準이 서로 다른 集團이 共存하는 社會에서는 國民總和는 사실상 이룩되기 어려운 것이다.

⑥ 人口의 增加는 非公式 規範에 대비한 公式規範의 量的 增加를 초래한다. 즉 慣習的인 規範보다는 法的인 規範에 의한 社會統制가

一般化되어 소위 말하는 法에 의한 支配가 이룩된다.

⑦ 人口增加 現象은 組織內에서의 合法的인 權力行使(Authority)의 단계를 형성하게 된다. 社長이 직접 一般社員과 접촉하여 作業命令을 내리고 對話를 통하여 生産性を 높이려는 행동하기가 어렵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들간의 對話의 斷絶로 인한 葛藤을 보게 되는 것이다.

⑧ 權位體系의 단계가 늘어나면 水平보다는 垂直的인 上과 下의 位階秩序가 硬直化될 위험성을 안고 있다.

⑨ 그래서 組織의 成員이 늘면 늘수록 이들 成員間的 葛藤과 摩擦의 可能性은 상대적으로 늘어 나게 된다.

⑩ 成員間的 葛藤과 摩擦을 解消하기 위하여는 協助와 調整의 필요성은 增大해 가는 것이다. 소위 말하는 和음을 어떻게 이룩할 것이냐 하는 問題가 대두하는 것이다.

⑪ 調整을 통한 協助를 極大化하기 위하여 合法的 權力(Authority)의 分散現象이 일어나게 된다. 權力의 分散을 통한 自律的인 調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成員間的 심각한 葛藤을 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人口가 算術的으로 增加하면 이들간의 意思疎通 通路(Channel of inteiaction)는 幾下級數的으로 增加하여 일부 對話의 通路는 遮斷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 현상이 後述한 階層間, 地域間, 世帶間的 文化斷絶을 재촉하게 된다.

人口는 增加하는 것으로 그 過程이 完成되는 것이 아니라 都市에 모여 들어 密集現象을 나타내게 된다. 農村의 村落社會에서는 오손도손 얼굴을 맞댄 대화를 나눌 수 있으나, 한

地域의 人口가 8百萬을 넘어서는 狀況下에서
 는 얼굴을 맞댄 대화는 극히 制限된 범위내에
 서만 가능한 것이다. 1백명 간의 對話의 通路
 는 4千 9百 50個 뿐이지만 서울의 8百萬名의
 對話의 通路는 무려 3百 20兆나 되는 것이다.
 서울의 어느 한 지점을 원점으로 하여 半徑
 10km의 원둘레 속에 들어 가는 人口가 약 3百
 14萬名에 이른다. 이들 간의 대화의 通路는
 4兆 9千億이 된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얼굴을
 맞댄 대화는 불가능하게 되고 따라서 한 世帶
 에서 다음 世帶에로의 同質的인 文化의 傳授
 도 어렵게 되고 地域間이나 階層間的 同質性
 도 계속 유지하기가 어렵게 된다.

한 地域內에 密集된 人口는 職業移動과 階
 層移動으로 말미암아 高所得階層에 속하던 사
 람이 하루아침에 低所得階層으로 격하되거나
 그 반대현상이 생겨 低所得階層의 사람이 上
 流階層에 뛰어드는 경우도 생긴다. 하지만 個
 인이 자라온 地域이나 階層에서 內面化시킨
 價値觀이나 規範 혹은 行爲樣式은 階層移動이
 나 地域移動과 함께 내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갖고 移動하게 되므로 새로 移動하
 는 地域이나 階層이 필요로 하는 價値를 쉽게
 受容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들
 을 일컬어 周邊人(marginal man)이라고 부른
 다. 어느 集團에도 歸屬感을 갖지 못하고 同
 一體意識을 갖고 있지를 못하여 이들은 하나
 의 斷切된 層을 형성하게 된다. 이들의 수가
 늘어서 多數를 形成하게 되면 그 社會는 불안
 정하게 되고 마치 사람이 물에 빠져 허우적거
 리듯 漂流을 하게 된다. 이러한 現象이 바로

世帶間, 地域間, 階層間的 葛藤과 斷切을 재
 촉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國民間的 總和
 도 이룩될 수 없게 되고 總和意識이 결여된
 상태에서 國民들의 社會參與를 복돋을 수 없
 으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한 나라의 均
 衡된 發展이나 開發을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아무리 經濟가 發展된다 하더라도 國
 民의 總和가 없이는 그 發展은 하나의 모래城
 에 불과할 것이다.

대화의 斷切을 극복하기 위하여 탄생한 것
 이 大衆媒體이다. 대중매체를 통하여 모든 國
 民에게 동일한 價値體系를 심어줄 수 있으나
 어떤 특징의 文化이나에 따라서 그 質은 결정
 된다. 여기에 價値體系의 劃一化의 문제가 따
 르는 것이다. 文盲人에게 알맞는 文化를 受容
 하도록 大衆媒體가 國民을 誘導하려고 할 때
 知識人들의 반발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汎國民的인 協議機構를 통하여 大衆매체, 특
 히 「텔레비존」의 放映內容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人口增加가 불러 일으키는 여러가
 지 바람직하지 못한 要因들을 설명하였으나,
 이것은 단지 극히 일부에 局限된 것이고 人口
 는 社會의 모든 分野에 직접 혹은 간접으로
 影響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問題에
 대한 永久的인 對策이 시급하게 마련되어 人
 口增加의 鈍化 내지는 抑制가 이룩되지 않는
 限 우리사회 政治, 經濟, 社會, 文化등 모
 든 分野에서 많은 陣痛을 계속하여 겪겨 되리
 라는 警告로 本原稿의 끝을 맺고자 한다. ■